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년)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3/20(월)	3/21(화)	3/22(수)	3/23(목)	3/24(금)
16구역	17구역	18구역	19구역	20구역
3/27(월)	3/28(화)	3/29(수)	3/30(목)	3/31(금)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	5지역
4/3(월)	4/4(화)	4/5(수)		
1구역	2구역	3구역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3월 19일(일), 11:40	강당
레지오 아치에스	3월 19일(일), 14:00	대성전
성체분배자회	3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성체 조배실
성모성심회	4월 1일(토), 17:30	강당

● 회의

- 사목협의회
- 일시 : 3월 23일(목), 19시 40분
- 장소 : 강당

● 알림

- 다음 주(3월 26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4월 1일(토) 부활 맞이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4월 1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2월 전입)

- 일시 : 3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 1교실
- *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4구역 1반	오홍석	F.사베리오	대구대교구/본리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모집

어르신들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 대 상 : 70세이상 남 녀
- 일 시 : 매주 목요일 10:40, 강당
- 교육내용 : 미술심리, 성경공부, 레크윅동, 만들기 등

나눔 바자회 물품 후원

- 기간 : 2월 12일~4월 2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본당 앞 마당
- 품목 : 의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완구류, 유아용품, 잡화등
- * 판매가 어려운 물품의 경우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 수익금은 구로3동 성당 신자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전례 봉사자 모집

거룩한 미사에 봉사하실 신자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 해설 팀장 : 신영옥 헬레나 010-6285-7480
- 독서 팀장 : 백희자 스텔라 010-5314-4939
- 성인복사팀장 : 하재민 베네딕토 010-8719-7594
- 반주 단장 : 김가람 로사 010-4274-4105
- ⇒ 평일 반주자 모집

● 다음 주일(3/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1구역	청소	2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3월 8일 ~ 3월 14일)

- 교무금 6,490,000원
- 주일헌금 4,774,500원
- 김진수20만원 김영희 3만원 홍예찬10만원
- 감사헌금 김○○10만원 정도선10만원
- 8구역 국수 잔치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3/19	이인옥	심재순	장희석	김영균	김진수	김덕영 정재경
3/26	권태희	오성환	김영균	도현만	장희석	최웅조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3/19	옥윤필	이화봉	손상민	박형순	최영만
3/26	최석준	장인홍	박용환	오광운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66. 두려움과 원한은, 처벌을 치유와 사회 재통합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지 않은 보복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이끌기 쉽습니다. 오늘날 “일부 정치 부문과 대중 매체가 이따금 범죄를 저지른 자들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든 없든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공적 사적 차원의 폭력과 복수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적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사회의 인식과 이해에 따른 위협적인 특징을 모두 보여주는 정형화된 인물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기제는 한때 인종 차별적 생각들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그 기제와 동일합니다.” 이로써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 차원의 구속, 재판 없는 즉결 투옥, 특히 사형에 의존하는 관행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267. 여기에서 저는 “오늘날 국가들이 부당한 침략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형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른바 재판 밖 처형 또는 법률 밖 처형입니다. 이러한 처형은 “일부 국가와 공무원이 저지르는 고의적 살인입니다. 이는 흔히 범죄자들과의 충돌에서 일어난 것처럼 넘어가거나, 법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적정한 선에서 힘을 사용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빚어진 것처럼 제시됩니다.”

268. “사형 반대에 대한 논거는 많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 일부를 마땅히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적 오류의 존재 가능성, 전체주의 체제와 독재 정권이 정치적 반감을 억누르거나 소수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이 형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체제들이 법률로 ‘범죄 성향자’라고 간주하는 모든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과 선의의 사람들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모든 형태의 사형 폐지를 위해서 투쟁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여 수감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도 싸우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종신형과 연관 지어 봅니다. …… 종신형은 드러나지 않는 사형입니다.”